

설날 가정 예배

인도자(가정의 가장 혹은 신앙의 세대주)

◎ 개식사 말 은 이
설 명절을 맞아 하나님께 명절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 신앙고백 다 같 이

◎ 찬 송 559장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아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 공동기도 다 같 이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예수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어 주고, 아껴주어 더욱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소서. 집안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의 사업과 일터를 살려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올해도 주 안에서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요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잘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성경봉독 시편 112:1~10 말 은 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흠여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 말씀 설날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자! 설 교 자

설날은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입니다. 오늘 즐거운 설날을 맞이하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개인도 개인이지만, 가문에 대한 소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 시편 112편에서 그런 소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이런 축복의 가문을 이루리라 소원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정):**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출애굽기 20:6에도 가문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는가? 1절이 정의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정)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정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① **강성함과 부와 재물의 복:**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니”

강성해지고 부와 재물을 의인의 가문에 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재물이 아니라 공의가 경비된 재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재물이 무조건 축복이 아니죠. 불의한 재물은 오히려 고통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방석이 가시방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웨일즈에 사는 한 젊은이가 로또복권에 당첨됐습니다. 하루아침에 110만 파운드(20억원)를 손에 쥔 그는 당장 직장을 때려치웠습니다. 어찌에 로또 맞은 날짜를 문신으로 새기고 으스스대면서 방탕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비싼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먹고 마시며 방탕한 삶을 이어갑니다. 도박에도 빠집니다. 나중에는 구치소까지 갑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립니다. 아직 돈이 많이 남았지만 회의를 생겼습니다. 이전에 지겹게 생각하던 일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급 1만원짜리 가게 점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지루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이 주어졌잖아 오히려 삶을 망가뜨린다는 중요한 예증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재물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의를 경비함으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많은 재물보다 의를 경비한 적은 재물이 훨씬 나은 겁니다. 시편 37:16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서 의인의 후손들이 대대로 재물의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37:25~26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② **승리의 복:** 세상에 사노라면 항상 순탄한 게 아니죠. 고난과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의인은 결국 승리합니다. 4절~6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은혜를 베풀며 꾸어 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결국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의인은 흔들리지 않고 결국 승리합니다.

시편 37:23~24에도 보면, 의인은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드심으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앞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의 가문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험한 세상 살기에 고난이 없을 수 없지만,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③ **평안의 복:** 세상은 요동하지만, 의인은 그 가운데서라도 평안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담대한 것입니다. 7절~8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흉한 소문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립니다. 다른 시편들도 보면 의인의 담대함과 평안함이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섯 같은 사람도 얼마나 위함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담대히 대처하고 평안을 누렸

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7:1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④ **존귀의 복:**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권세를 누리도 악명이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죠. 예를 들어, 독재자들의 경우 얼마나 호사스런 생활을 합니까? 그러나 말로가 비참합니다. 리비아의 카타피의 최후를 보십시오! 그 일가족이 사용하던 호화저택과 별장의 모습이 보도됐죠. 그러면 뭐 합니까? 마지막에 군중의 욕설과 저주를 들으며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습니다. 비참한 인생일 뿐입니다. 인간은 그 이름이 존귀해야 합니다. 의인은 그 이름이 존귀합니다. 영원히 그 이름이 보존됩니다.

9절. “그가 재물을 흠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다” 뿔은 여기서 명예를 상징합니다. 의인은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존귀한 이름을 갖지만, 궁극적으로 저 천국에서 영원히 면류관 쓰고 빛나는 모습으로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개인도 그렇지만, 그 가문이 자자손손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18세기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주도했고,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가문 8대까지 내려가면서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 추적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통령 1, 주지사 3, 대학 총장 13, 시장 3, 장·차관 82, 변호사 149, 판검사 45, 목사 116, 의사 68, 대학교수 65, 세계적인 사업가 75, 발명가 25 ... 수많은 후손들이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니다.

반면에 맥스 쥬크는 방탕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가문은 5대에 걸쳐 후손들이 2,24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겨우 20명만 정상적인 인생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유아사망자, 절인, 도둑, 살인자, 매춘부, 알콜중독자 등이었다고 합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의인의 가문과 악인의 가문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육신적으로 대단한 집안도 예수 안 믿으면 별 볼 일 없어집니다. 반짝하다 끝나버립니다. 반대로 별 볼 일 없는 집안도 예수 잘 믿으면 대단해집니다. 후대로 내려가면서 좋아집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보다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한 집안이 훌륭한 집안입니다. 이번 설날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면서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의인의 가문, 신앙의 명문가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 설교자기도 받은 말씀 붙들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 통성기도하고 설교자가 마무리 기도 설교자

◎ 찬 송 **553장(1절)** 다 같 이

- 1. 새해 아침 환히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앞에 모두 모여서 기쁜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고 서로 돕고 사랑하여 주께 영광 돌리세

◎ 주기도문 다 같 이

♡ 예배 후,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지난날 기뻐던 일, 어려웠던 일 덕담을 나눕니다.

2024

설날감사에배

설날예배를 통해 온 가족들과 일가친척이 모여서
항상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예 배 준 비

- 1. 예배 상을 준비하고 그 상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둘러앉습니다.
- 2. 예배순서에 따라서 가족 중 신앙의 세대주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 3. 예배순서 중 기도나 성경 봉독을 가족들이 나누어 담당하면 좋습니다.
- 4. 예배 후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합니다.

